



●천세진 작가 첫산문집 '작은 날씨들의 기억'

“오늘은 어떤 생의 날씨와 마주했나요?”

시인·소설가·문화비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천세진 작가의 첫 산문집 '작은 날씨들의 기억' (백조출판사)이 출간됐다. 시집 '순간의 젤리', '풍경도둑', 문화비평서 '어제를 표절했다', 장편소설 '이야기꾼 미로'에 이은 다섯번째 책이다.



일상 속 '작은 것'들이 지닌 따뜻한 이야기



삶 채우는 공간·시간·사물과의 내밀한 대화 "생은 주목받지 못하는 일상이 채워주고 치유"

산문집 '작은 날씨들의 기억'에 등장하는 날씨는 물리적 세계의 날씨가 아니라 삶의 세계의 날씨를 의미한다. 물리 세계의 날씨를 '대기후'와 '미기후'로 나누는 것처럼, 인간 삶에도 넓은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큰 날씨와 작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날씨가 있다. 저자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거대 서사나 역사적이고 스펙터클한

사건들로 구성되는 '큰 날씨'가 아니라 생명을 지속하게 만들지만 정작 주목받지 못하는 소소한 일상으로 이뤄진 '작은 날씨'라 이야기한다. 일상적으로 찾아드는 작은 일들에 대한 미시적이고 미학적인 해석이야말로 생을 진정 풍부하게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책은 크게 '풍경 이야기', '아카이브 이야기', '시간 이야기', '겨울 이야기' 총 4부로 구성됐다.

그는 인간 삶을 구성하는 공간, 시간, 자신의 공간을 채우는 애착하는 사물, 자아를 드러내는 다양한 유무형 사물들과 내밀한 대화를 나눈다. 책은 일상을 담으면서도 인문학에서 멀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삶에 적용해야 할 거창한 이론을 주장하거나 자기계발서들이 주문하는 상식적인 팁을 나열하지도 않는다. 맑게 증류한 생각만을 담아내고 있다. 저자는 책 곳곳에서 이 세계가 너무 큰 것에 집착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큰 슬픔들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큰 것이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작은 슬픔과 다른 작은 것들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평화로운 사회라고 주장한다.

우리 삶을 구성하는 작은 사건·사물·풍경·인연들이 가진 따뜻하고 내밀한 의미를 배치해 '생의 정원'과 '생의 도서관'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웅송 깊게 이야기한다. 또 그는 이름을 부르는 일에도 주목한다. 저자는 "모두가 유명한 이름이 되고 거대 서사에 등장하는 이름이 되려고 하지만, 건강하지 않다"며 "거대서사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고 언급한다. 저자 천세진은 "과란만장은 치유의 대상이지, 삶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 삶은 주목받지 못하는 일상이 채워주고 치유해준다"며 "세상에 알맞은 사랑은 일상성으로서 빛나는 사랑이라고 믿는다"고 밝히고 있다. /최명진기자

새로운 책



▲잠시 작게 고백하는 사람=황인찬 저자 7월, 어떤지 녹전하면서도 투명한 '여름 냄새'를 생각할 적에 가장 먼저 떠올릴 이름이기도 하다.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하루는 시로 하루는 에세이로 여름의 날들을 채워나간다. 때로는 그런 여름의 외약별 아래서, 더리는 지난여름의 녹록한 흔적 곁에서, 가끔은 먼 여름의 소식 앞에서 시를 생각하는 시인의 일상들이 담겼다. 이 책에는 시질의 어긋남에 대한 이야기와 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뉘어 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시의 부적절'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시를 이해하는 일이라는 믿음에 기인한다. /산다·1만5천원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김원영 저자 '온전히 평등하고도 지극히 차별적인'은 변호사에서 무용수가 되는 새로운 경험을 거치는 가운데, 장애가 있는 몸으로 마주한 질문과 삶의 역사를 남기며 그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차별과 평등의 관계를 탐구한 기록이다. 무용사에 '이례적' 신체가 등장하는 사건을 조망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승희, 니진스키 등 동서양 무용계 타자들을 넘어 당대 독자적 흐름을 창조해가는 장애인 극단과 무용팀의 목소리까지 생생하다. /문학동네·1만9천원



▲탕비실=이미에 저자 150만 독자가 사랑한 '달리구트 꿈 백화점' 이미에 작가가 이번에는 '탕비실'로 독자들을 찾았다. 여러 직장에서 '탕비실 발원'으로 꼽힌 사람들을 한데 모은 '7일간의 리얼리티 쇼'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쇼의 재미는 물론 인간 심리를 깊이 있게 분석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작가는 일상 속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출연자들의 행동과 심경 변화로 생생하게 그려내며, 독자들에게 공감, 재미와 기묘한 불쾌함 등 다양한 감정을 선사한다. /한가·1만4천원



▲공공공명명=윤정주 글·그림 강아지 공지의 배움을 받으며 민지네 식구가 모두 집을 나선 아침. 피리링, 피리링, 피리링... 휴대폰 벨 소리에 냉장고 친구들이 모두 깨어난다. 민지 엄마가 서두르다 휴대폰을 냉장고에 두고 간 것이다. 냉장고 친구들이 전화를 받아 보니 민지가 다쳤으니 학교로 와 달라는 담임 선생님의 전화다. 냉장고 친구들은 허둥지둥 민지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보지만, 아빠는 회의가 있다면서 전화를 끊어 버린다. 걱정이 된 소시지 삼총사와 셀러리 누나는 낱새로 공지를 띄어 엄마 회사로 달려간다. 공지와 냉장고 친구들은 엄마에게 휴대폰을 잘 전해 줄 수 있을까. /책읽는곰·1만5천원

민선8기 전반기 지역 문화정책·현황 진단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 64호 발간...맛의 역사 등 신규 코너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재단)이 발행하는 문화간행지 '창' 제64호가 발행됐다. 이번 호 표지는 박홍수 작가 작품이 장식됐으며 박철수 재단 후원이사회 부회장의 글로 창을 연다. 특집기획은 '민선8기 전반기 문화분야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임영인 전남대 교수 '한국의 문화정책과 광주시 지역문화정책' ▲정양주 광주민예총 부회장 '광주는 예술하

기 좋은 도시인가' ▲고선주 광남일보 문화부장 '문화민주주의 실현되고 있나' 등 내용이 담겼다. '문화인 인터뷰'에서는 노회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과 임기 내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문화마실'에서는 인문예술축제 '2024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한다' 행사와 조계현 윤상원



특히 이번 호에서는 이용연 마을자치연구소 대표의 '들들의 귀환'을 비롯해 '법 잘 알려주는 재단 오피' 김민표 변호사의 '상속과 유언', '맛의 역사 - 어쩌다 오리탕은 광주의 대

표 음식이 되었을까' 등 코너를 새롭게 만들었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실생활에 유용한 이야기를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친근감 있게 실어 신선함을 더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관계자는 "다가오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재단은 새로운 변혁과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이 지역 문화 담론이나 이슈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소식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창간된 문화간행지 '창'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전문매체로서 지역의 문화소통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문화유관기관에 배포된다. 재단 후원회원이 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